

민 정 실	음 진 천
-------------	-------------

# B U D D H A N A R A

**우리는 햇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첫째주 일요일 11시 초하루 기도 법회  
 둘째주 일요일 11시 인등 기도 법회  
 셋째주 일요일 11시 전법기도 법회 및 선 요가  
 넷째주 일요일 11시 “원각경 보안 보살장” 독경 법회 (한글 번역본)

불국사 콜롬비아 지역 법등 법회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Sun Meeting -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달의 법구경: - 덕 많고 남 도우는 사람  
 진실의 빛으로 자유 얻고,  
 마 (魔)의 여신이나 죽음도  
 이 사람 막지 못하네.

The path of those who are rich in virtue, who are ever watchful, whose true light makes them free, cannot be crossed by MARA, be death.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도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http://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5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 조계종 소식 --

선우논강, 간화선 수행법 주제면 논쟁 : 각목스님 “초기불교 수행법 최적” 주장

분석적 해체와 직관에 의한 통찰 중 어느 방법으로 수행해야 해탈,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

‘〈대념처경(大念處經)〉으로 읽는 초기불교의 수행’이라는 주제로 지난 2월 26일 남원 실상사에서 열린 선우논강은 초기불교 수행법과 간화선 수행법에 대한 열띤 논쟁의 장이 한국에서 펼쳐졌다.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각목스님은 주제강연을 통해 “몸과 느낌, 마음, 법 등의 대상을 마음챙김함으로써 팔정도로 귀결해 해탈,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대념처경에 나타난 초기불교수행법”이라면서 “이들 대상을 분명하게 보기 위해 하나, 하나를 해체하고 분석하는 수행법이 해탈, 열반으로 향한 가장 좋은 수행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스님은 “개념적 존재를 법들로 해체하게 될 때 무상, 고, 무아라는 제법의 보편적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나 더 이상 개념적 존재를 두고 갈애와 무명을 일으키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중생들은 무언가 불변하는 참나를 거머 쥐려하는데 이것은 취착(就捉) 가운데 가장 큰 취착”이라면서 “나라는 존재를 해체해서 통찰하지 못하면 자성칭정불, 심즉시불, 중생즉불이라고 하는 개념적 명제에 함몰돼 깨달음을 잘못 이해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백담사 무급선원장 신통스님은 “언어로 해체해 분석하는 것은 조계종의 중지를 뒤흔들 뿐만 아니라 인가를 받아 내려 온 역대 조사스님들을 해체해서 살펴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직관에 의한 깨침이 아니라 논리적 분석을 통한 해체로는 열반에 이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 안동 연미사 주지 지일스님은 “서구사상과 동양사상이 계속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초기불교수행법과 중국불교에 근간을 두고 있는 간화선 수행법이 계속 부딪히고 있다”면서 “서구사상과 맥을 같이하는 초기불교의 해체에 의한 분석을 동양사상을 기본으로 하는 간화선에 대입해 분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초기불교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인 사티(sati)에 대한 해석을 ‘마음챙김’이 아니라 ‘알아차림’이라고 해야 한다는 참석대중 스님의 주장에 대해 각목스님은 “알아차림은 사마타수행법을 뺀 지극히 위빠사나수행법 위주의 용어”라면서 “사티의 의미를 ‘마음을 챙김’이 아니라 ‘마음이 대상을 챙김’이라고 해야 몸, 느낌, 마음, 법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게 된다”고 답했다. 남원=박인탁 기자

정념의 번역어 ‘마음챙김’이 생소한데...

A 팔정도 가운데 하나가 정념(正念)입니다. ‘바른 생각’이나 ‘바른 기억’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많은데 각목 스님은 ‘바른 마음챙김’이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로 옮겨 설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마음 챙김이란 무엇인가?

정념은 실참수행 대상을 세분한 후 분명하게 집중해 마음 챙기는 공부

Q 정념은 빠알리어 삼마 사띠(sammaa-sati, 산스끄리트 samyak-smṛti)의 중국번역입니다. 여기서 삼마(sammaa)는 ‘바른, 옳은’을 뜻하는 형용사이므로 중국에서 ‘正’으로 옮겼고 사띠(sati, smṛti)는 √smr\*(기억하다)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국에서는 ‘念’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의미를 살린다는 뜻에서 한글로 ‘바른 기억’으로 설명하는 분들도 있고 ‘念’이 ‘생각 념’자이므로 ‘바른 생각’이라 이해하려는 분들도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는 경에서 정의하는 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해석이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행과 관련된 문맥에서 사띠는 결코 기억이라는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른 생각은 팔정도의 두 번째인 바른 사유(正思惟)에 해당합니다.

경에서 정념은 사념처(四念處,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를 뜻한다고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사념처란 몸(身).느낌(受).마음(心).심리현상(法)이라는 네 가지 대상 가운데 하나를 챙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정념은 실참수행의 대상이 되는 나라는 존재를 몸과 느낌과 마음과 심리현상으로 구분해 이들 가운데 하나에 마음을 챙기는 수행을 뜻합니다. 그래서 안세고 스님은 이미 서기 150년 경(후한)에 사띠를 수의(守意)로 옮겨서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고 챙기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음챙김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는 “여기 마치 송아지를 길들이는 사람이/ 기둥에다 송아지를 묶는 것처럼/ 자기의 마음을 마음챙김으로/ 대상에 굳건히 묶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분명하게 챙기지 않으면 마음은 이리저리 다른 대상으로 헤매거나 멍청한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바른 수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상을 세분하여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수행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몸을 대상으로 마음을 챙긴다고 하지만 몸이라는 대상도 한 순간에 모두 다 챙기기에 너무 크고 많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대념처경>에서는 이러한 몸을 챙기는 공부도 더욱 더 세분해서 설명합니다. 몸 가운데서 가장 분명한 것이 들숨과 날숨입니다. 그래서 경에서는 들숨과 날숨이 매순간 들어오고 나가면서 닿는 부분에서 들숨과 날숨을 챙기는 공부를 신념처(身念處) 가운데서 첫 번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의 각 부위를 32 가지로 해체해서 이들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인식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챙기는 공부를 설하기도 하며, 다시 지수화풍의 4 대로 해체해서 챙기는 수행을 설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챙김은 나 자신을 21 가지 혹은 44 가지로 분해하고 분석하고 해체해서 그 가운데 하나의 분명한 대상에 마음을 챙기는 공부를 뜻하지 기억이나 생각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른 마음챙김이야말로 팔정도가 드러내는 가장 본격적인 공부법입니다. 이러한 정념공부를 단지 바른 기억이나 바른 생각으로 이해해 버린다면 이경 경의 가르침에 너무 무지한 발상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마음챙김을 본격적으로 설하고 있는 <대념처경> 과 이에 대한 상세한 주석들을 모아서 <네 가지 마음챙기는 공부> (초기불전연구원, 2004)로 출간했습니다. 마음챙기는 공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일독을 권합니다.

### 기초교리: 부처님은 누구인가

#### 삶의 굴레 떨쳐낸 ‘인류의 스승’

##### 왕자의 길 버리고 진리 탐색, 불교의 출발점이자 귀결점

부처님은 삼보 중의 첫째로 불교의 출발점이자 귀결점이다. 종교로서 불교의 모든 양상은 부처님과 부처님에 의해 설해진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그 불교의 근원에는 부처님이 있다. 부처님이란 진리를 깨친 분이란 뜻으로, 붓다의 우리말이다. 평범한 인간으로 태어나 진리에 눈을 떠 깨달음을 얻어 모든 인간들에게 지혜와 자비의 모범을 보인 분, 부처님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인격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보여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다.



부처님, 곧 붓다는 ‘깨달은 자’란 의미로, 깨달음의 종교체험이후 붙여진 이름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누가 붙여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칭한 말이다. 깨달음의 체험을 통해 더 이상 번뇌와 정신적 고통이 없이 삶의 진리를 확연히 알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를 칭한 이름이다.

깨달음을 얻기 전의 이름은 고타마 싯다르타 즉 고타마(‘최고로 훌륭한 소’란 뜻)란 성을 가진 가문으로서 이름은 싯다르타, ‘모든 것을 성취한 자’란 뜻이다. 아버지는 당시 소규모 국가인 카필라국의 왕인 숲도다나, 어머니는 마야부인이다. 흰 코끼리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태몽을 가지고 태어난 싯다르타는 탄생이후 아시타라는 당시의 예언자에 의해 붓다가 되리라는 예언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당시의 예언에 의하면 싯다르타는 후에 위대한 군주로서 전륜성왕이 되던가, 진리를 깨친 인류의 스승이 되리라는 것이었지만, 아시타는 인류의 스승으로서 붓다가 되리라 예언했다고 전해진다.

왕자로서 태어난 싯다르타는 당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영위했다. 그러나 싯다르타는 그런 왕자로서의 윤택한 삶을 버리고 출가자로서의 길을 택해 힘든 수행의 길에 들어가게 된다. 29 세에 출가하여 구도수행을 한 싯다르타는 6 년간의 구도수행을 통해 마침내 35 세에 진리를 깨쳐 붓다가 된다. 붓다가 된 이후 80 세에 열반에 들 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한 지혜와 한량없는 자비심을 보이시어 만인의 스승으로 추앙되었다.

그러면 왕자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삶을 버리고 진리를 찾는 수행자의 길로 들어가게 한 것은 무엇이였을까. 싯다르타의 출가는 당시 인도의 사람들에게 가히 충격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모와 가족보다도 더욱 중요한 진리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싯다르타를 출가의 길로 이르게 하였지만, 그것은 왕위를 계승해야할 왕자의 신분에서는 더욱더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렇더라도 진리추구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준 것은 무엇이였을까. 싯다르타로 하여금 그토록 번민케 한 정신적 갈망은 무엇이였을까.

카필라국의 네 성문을 지나며 노인과 병자, 시체, 수행자를 보았다는 소위 ‘사문유관(四門遊觀)’의 가르침에 의하면,

싯다르타의 번민은 인간이 가진 한계, 그로 인한 정신적 번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가는 인간의 한없이 나약한 삶의 현실에서, 인간에게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확실한 열반의 진리, 그 진리를 위해 싯다르타는 과감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행자의 길로 나섰던 것이다. 인간의 삶 속에 정신적 굴레, 속박으로 작용하는 모든 번뇌와 괴로움을 종식시키는 방법이 진리에 대한 탐구이며, 삶의 근본이치를 아는 것이다. 그리하여 당시 진리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관습인 출가수행의 방식에 따라 싯다르타는 출가하고, 진리의 이치를 깨달았던 것이다.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삶의 굴레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진리를 위해 분연히 일어나 그 이치를 온전히 깨달아 만인의 스승으로서 귀감이 된 분, 그 부처님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 인간에게 진리를 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 이 태승 -

음력 설에 부처님전에 올린 통알(세알법회)에 관해 생소해 하는 불자님들이 있어서 사찰 풍습중의 하나인 “통알”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올려 드립니다.

## 통알(通謁)

정월 초하루 불법승 삼보에 인사하는 ‘세배’: 산중 어른 스님부터 시작... 차례로 ‘삼배’, 재가신자들도 참여 부처님 자비광명 빌어

음력 정월 초하루는 한해의 첫날이다. 달의 기울기에 따라 한해를 설계했던 농경사회와 달리 음력의 중요성은 거의 사라졌지만 민족 최대 명절인 음력 설 만은 여전히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설 하루 전 날부터 하던 일을 멈추고 음식을 만드느라 분주하고 멀리 떠난 가족 친척들은 함께 둘러앉아 지나간 이야기를 나눈다. 설날 새벽에는 옷을 갖춰 입고 부모님을 찾아 인사 드린다. 아랫사람이 세배(歲拜)를 하면 어른들은 덕담과 함께 세뱃돈을 준다. 살아있는 부모님에게 인사를 마치면 다음은 돌아가신 선조에게 차례를 드린다. 뒤이어 친척이나 동네 어른을 찾아 인사를 드린다. 이렇게 인사, 즉 세배를 하는 것은 한해 동안에도 아무일 없이 평안하고 건강하게 지내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있다.



사진설명: 사찰에서는 정월 초하루날 석가모니 부처님과 제불보살 그리고 어른 스님들에게 인사를 올리는데 이를 통알 혹은 세알이라고 한다. 사진은 지난 1월 1일 통알의식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조계종의 스님과 재가 종무원들 모습. 불교신문 자료사진

사찰의 설날 풍경 역시 일반 사회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새해 첫날 새벽 예불을 마친 후 전 대중이 법당에 모인다. 스님들은 불법승 삼보 및 제불보살과 신중(神衆)에게 인사를 올린다. 이어 산중의 어른 스님을 찾아 인사 한다. 세속에서는 이를 세배라고 부르지만 사찰에서는 통알(通謁)이라고 한다. 법당에서 제불보살에게 올리는 인사를 통알이라고 하며 어른스님들에게 인사하는 것을 세알(歲謁)로 구분해서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는 새해 첫날 인사하는 것을 통알이라고 통칭해서 부른다. 가족과 친척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세속의 세배와 달리 불교의 통알은 삼보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즉 대자대비의 정신이 들어있다. 기원하는 대상과 내용이 세속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크다.

이같은 새해인사는 부처님 당시나 인도에서는 없던 의식이다. 일년을 간지(干支)로 구분하는 것은 중국의 절기법으로 사찰에서의 새해 풍습 역시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다. 불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민가의 풍습을 불교가 받아들인 것이다.

통알도 일정한 절차가 있다. 우선 통알에 앞서 축상작법(祝上作法)을 행한다. 축상작법은 일종의 불공의례이다. <석문의법> 에는 그 절차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우선 아침에 일어나 금고(金鼓)를 세번 두드린 다음 범종을 108번 친다. 그 다음 법당과 선당.종각.승당의 뜰 가운데에서 종을 치고 승당.선당.법당 순으로 향을 뿌린다. 이후 계송을 읊는데, 삽향계(插香偈),갈향계(嚼香偈),연향계(燃香偈)를 읊는다.

축상작법을 마치면 삼보전에 예경을 올리는 통알을 행한다. 하지만 현재는 축상작법은 하지 않고 바로 통알을 한다. 통알은 대중 가운데 나이가 제일 어린 사미가 계송을 하면 대중은 이에 맞춰 절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 대중이 대웅전에 모이면 스님들은 “대중은 엎드려 청하옵니다. 일대교주 석가모니불이시여(伏請大衆一代教主釋迦世尊前)”하고 우선 부처님에게 세배를 올리는 것으로 통알은 시작된다. 이어 계속해서 지방삼세의 불보와 법보, 승보 전에 삼배를 한다. 이어 명부시왕 호법신중 내지 산신들, 그리고 국가와 시주 등 먼저 돌아가셨거나 살아 계신 스승과 부모, 친척, 일체

고혼에게 삼배한다. 그리고 끝으로 같이 거주하며 수행하는 도반들과, 강원 대중들에게 삼배를 한다. 세속에서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조상과 친척 어른 등을 찾아 차례로 인사하듯 교주이신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차례로 인사하는 것이 통알의 방식이다.

〈석문의범〉에 따르면 통알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의식문을 외우며 삼배를 한다.

복청대중 일대교주 석가세존전 세알삼배(伏請大眾 一代教主 釋迦世尊前 歲謁三拜) 복청대중 시방삼세 일체불보전 세알삼배(伏請大眾 十方三世 一切佛寶前 歲謁三拜) 복청대중 교리행과 일체법보전 세알삼배(伏請大眾 教理行果 一切法寶前 歲謁三拜) 복청대중 대소선교 일체승보전 세알삼배(伏請大眾 大小禪教 一切僧寶前 歲謁三拜)

뒤이어 시왕전, 신지전, 제위전, 각위전, 백관전, 단월전, 친척전, 고혼전, 대중전으로 순서가 이어진다. 사찰에 따라서는 ‘복청대중 차사최초창건주 혜린선사 원력수생 중흥조도 해동불일 보조국사 여시차제 십오국사 위작 증명법사 지공 나옹 무학 삼대화상전 세알삼배’ (伏請大眾 此寺最初創建主 慧璘禪師 願力受生 中興祖道 海東佛日 普照國師 如是次第十五國師 爲作 證明法師 指空 懶翁 無學 三大和尚前 歲謁三拜) 식으로 창건주나 조사스님들에게 삼배를 올리기도 한다.

이렇듯 통알이 끝난 후 법당에 모인 모든 대중들은 노소에 따라 절을 한다. 차례는 산중의 가장 어른 되는 스님에게 대중 전체가 절을 하고 차츰 밑으로 내려가는 식이다. 총림인 경우 방장스님에게 전체 대중이 목탁에 맞춰 절을 한다. 총림이 아닌 경우에는 조실스님이나 주지스님이 가운데 앉아 절을 받는다. 방장 조실 스님에 대한 삼배가 끝나면 각 장로들이 자리에 앉고 나머지 대중들이 다시 삼배를 올린다. 다음으로 산중의 소임자 스님들이나 비구스님들이 앉으면 사미 비구니 사미니가 삼배를 올리고, 다음에 사미가 자리에 앉아 절을 받는다. 이어 비구니가 자리에 앉고 다음에 사미니가 앉아 신도들로부터 삼배를 받는다.

이렇게 통알과 새해 인사가 끝나면 각단의 불보살에게 예를 올리고 다음으로 사찰의 조사전 내지 영각 등을 찾아 그 사찰의 개산조 및 중흥조 역대 중조 및 조사들을 위한 다례를 행하게 된다.

이같은 설 의례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한국 사찰에서의 설의례는 이미 통일신라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것으로 보인다. 엔린의 〈입당구법순례기〉에는 “정월 초하루날 여러 사찰에서 속강(俗講)을 시작했다”고 한다. 속강은 변사(辯士)가 나와 무성영화를 보여주는 것처럼 그림으로 그린 경전 즉 변상도(變相圖)를 보여주고 경전을 설명하는 것이다. 적당한 효과와 몸짓을 섞어 흥미를 유발하는 일종의 연희(演戲)다. 〈환주청규〉(幻住淸規)에는 “정월 1 일 세단(世旦)에는 오경(五庚)에 종과 판을 울려 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대비주로서 축(祝)하였으며 재(齋)를 운영하였고 능엄을 외우고 회향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한국에서 불교 초창기 정월 풍습은 인사보다는 경전을 읊는 등 공부에 더 치중했던 것 같다.

조선시대 까지만 해도 사찰에서는 스님들이 통알과 다례를 마친 후 마을에 내려와 떡을 바꿔주는 풍습이 있었다. 이를 승병(僧餅)이라고 했다. 이 승병을 나눠주는 것은 ‘절에서 만든 떡은 마마를 곱게 한다’는 속설에 따른 것이다.

〈동국세시기〉에 보면 “스님들은 절에서 만든 떡 한개와 속세의 떡 두개와 바꾼다. 절 떡을 얻어서 아이들에게 먹이면 마마를 곱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후세에 이르러 승려들의 도성출입을 금지해 성밖에서나 이 풍습이 남아 있을 뿐이다”라고 했다. 사찰에서는 또 성불도(成佛圖)라는, 지금으로 치면 낱말 맞추기와 같은 놀이를 했다.

한편 정월 초하루 하루 전인 선달 그믐이 되면 재가자들은 모두 차례를 지내기 위해 집으로 가고 사찰에는 스님들만 남는다. 이날 오전에는 그믐날 열리는 포살을 한다. 이어 오후가 되면 윷놀이 등으로 명절 전날을 보낸다. 새해 아침 축상작법 통알 세알과 각 단 예불을 올리고 난 뒤 아침을 먹는데 보통 아침은 죽이지만 이 날만은 떡국을 먹는다. 이어 스님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세배를 다닌다. 총림의 경우 산중에 어른 스님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각 암자가 멀리 떨어져 있어 하루가 모자랄 지경이다. 보통 세뱃돈을 주지만 먹는 것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신도들이 스님에게 세배 드리러 오는 시간도 이 때다. 낮에는 또 축구나 탁구 시합이 열려 산중 스님들 사이에 우의와 화합을 다진다. 밤이 되면 윷놀이로 다시 즐거운 한 때를 보낸다. 최근에는 사라졌던 성불도 놀이를 재현해 신도들과 함께 노는 사찰도 많다. 이같은 설 분위기는 그 다음날 까지 계속된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다. 음력 초 삼일 부터는 또다시 용맹정진에 들어간다. 선원은 동안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더 신심을 낸다.

행정 사무를 보는 서울의 총무원이나 본사 등에서는 양력 초하루날 시무식을 보는데 이 때 약식 통알이 벌어지기도 한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 등 중앙종무기관 스님 종무원들은 몇해 전부터 조계사 대웅전에서 통알을 도입해 총무원장 스님에게 인사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부장 스님 국장스님 등으로 내려가며 차례로 삼배를 올린다. 마지막으로 재가신자들이 서로

인사한 뒤 끝 맺는다. 일반 기업 관공서의 사무식과 사찰의 통알이 결합된 것이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의 양력 설 사무식 광경이다.

사찰에 내려오는 많은 풍습이 사라졌지만 이 통알 만은 아직도 한국 사찰에 면면히 살아있다. 일반인들이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듯 서울의 중앙기관이나 다른 곳에 나가 있던 스님들도 이날 만은 머물던 사찰이나 본사를 찾아 대중스님들과 함께 새해를 맞는다. 선원 수좌들이 많기로 특히 이름난 구례 화엄사는 안거 기간동안 다른 선방에 가 있는 스님들을 배려해 해제 다음날 모두 모여 다례를 올리기도 한다.

## 법회소식 NEWS

- 을유년 닭의 해가 밝았습니다. 2005 년에도 2004 년과 마찬가지로 주위 분들이 부처님법에 의지해서 인생을 보람되게 살 수 있도록 불자님들 가까이 계신분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에도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많이 전 합시다.
- 현재 불국사에서서는 부처님 오신날 연등 제작에 필요한 연잎을 쪼고 있습니다.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주지스님이나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 3 제주 전법기도와 교리 탐구 시간에는 지원이 엄마인 감로수 보살님께서 신도님들께서 건강하게 사실수 있는 운동중의 하나인 요가 실습이 2부 법회 시간에 있겠습니다. 간편한 복장으로 법회에 참석해 주십시오. 4 제주 법회에는 “원각경 보안보살장” 한글 해설판 독경이 있겠습니다.
-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거주하시는 우담화 엄정옥 보살님이 임종하셨습니다. 보살님은 긴 시간동안의 암투병 시간동안 부처님의 가피가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시면서 병원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임종순간까지도 사경과 기도를 손에서 놓지 않으셨던 보살님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보살님 가족들도 하루속히 슬픔에서 벗어나서 일상의 생활로 돌아와서 보살님의 못다한 원력들을 이뤄 나가시를 기원드립니다.  
불국사 식구들도 우담화 엄정옥 불자님 영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한국에서 활동하는 불국사 후원회는 현재 불기 2549 년 (2005 년) 부처님오신날 일년 연등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불자님들 중에서 일년등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은 불국사 후원회 총괄을 맡은 백련화 보살님이나 청정행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동참금은 오만원입니다.)  
한국 불국사 후원회 연락처는 (02) 722-0736 입니다.
- 2 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22 번 신유생 이석일, 27 번 정사생 황성모, 39 번 을묘생 오지훈, 101 번 경자생 한상범, 102 번 기축생 김경자, 133 번 병오생 박광원, 134 번 정미생 안희명, 135 번 신미생 박상현, 136 번 임오생 박수빈, 191 번 정묘생 박일섭, 192 번 신미생 박여름, 242 번 정축생 원봉린, 243 번 경신생 이인수, 245 번 을축생 이인성, 246 번 병인생 김현식, 247 번 기사생 김도식, 248 번 병인생 박수희, 249 번 경오생 박준석, 250 번 무오생 임영돈, 251 번 신해생 최지혜, 252 번 신축생 정태주, 253 번 을사생 박정화, 254 번 경오생 정재희, 255 번 계유생 정재희, 256 번 정미생 이기윤, 257 번 기유생 박선자, 258 번 경진생 이용진, 259 번 임오생 이호진, 262 번 정유생 문병호.  
-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2 제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추고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
- 현재 불국사에서서는 지붕 불사를 합니다.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불국사 회장님이나 총무님, 또는 불국회 회장님 및 불국회두분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 성불하십시오. -
- 부다나라 템플(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BUDDHANARA TEMPLE)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